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 대 노리치시티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팀의 세 번째 골이자 자신의 리그 6호(시즌 7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 이젠 '손흥민 팀'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고 모처럼 도움도 작성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5일(현지시간) 열린 노리치시티와의 2021-2022 EPL 15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 2-0으로 앞선 후반 32분 췌기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EPL 6호이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의 한 골을 더해 공식전 전체 7호 골이다.

2일 브렌트퍼드와의 리그 14라운드에서 한 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여기에 손흥민은 전반 10분 루카스 모라의 선제 결승골 땀 도움을 기록했다.

10월 초 애스턴 빌라와의 7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리그 1호 도움을 작성한 이후 약 2달 만에 나온 도움이다.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에서의 하나를 더해 공식전 전체 도움은 3개로 늘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총 7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0개를 돌파했다.

후반 22분에 코너킥으로 득점의 시작점 역할까

EPL 노리치시티전

1골 1도움...3-0 승 이끌어

시즌 7골 3도움 기록

팀 득점 절반에 관여

지 해낸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운 토트넘은 최하위 팀 노리치를 3-0으로 완파, EPL에서 최근 3연승을 포함해 4경기 무패(3승 1무) 상승세를 이어가며 5위(승점 25)로 올라섰다.

손흥민-해리 케인-모라의 선발 공격진을 꾸린 토트넘은 경기 시작 10분 만에 손흥민과 모라의 멋진 합작품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중원에서 손흥민과 패스를 주고받은 모라가 손흥민이 돌려준 공을 지켜낸 뒤 페널티아크 뒤에서 강한 오른발 슈트를 때렸고, 공이 골 그물을 흔들었다. 모라의 이번 시즌 리그 첫 골이었다.

왕백 세리히오 레길론이 전반 20분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되는 변수 속에 토트넘은 이후에도 몇 차례 기회를 맞이했지만, 전반 추가 골로 연결하지는 못했다.

후반 들어 점유율을 노리치에 내주고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한 채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토트넘은 손흥민의 발에서 시작된 세트피스에서 추가 골을 뽑아냈다.

후반 22분 손흥민의 오른쪽 코너킥을 벤 데이비스가 머리로 받은 것이 골 지역 안에서 상대 선수 몸에 맞고 떨어졌고, 다빈손 산체스가 그대로 오른발 슈트를 꽂았다. 산체스는 이번 시즌 첫 골을 신고했다.

동료들의 득점에 연이어 기여한 손흥민은 후반 32분엔 직접 해결사로 나섰다.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데이비스가 공을 투입했고, 손흥민은 수비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밀고 들어가 오른발로 골 그물을 갈랐다.

지난 경기 득점 때와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로 자축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완승의 일등 공신으로 빛났다.

/연합뉴스

K리그1 전북 우승...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개인상 경쟁·승강 플레이오프

전남드래곤즈 FA컵 결승 2차전

K리그 2021 시즌의 대장정이 전북현대의 5연패로 막이 내렸다. 순위 싸움은 끝났지만 경쟁은 계속된다.

7일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선수들을 가리는 'K리그 2021 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8일과 12일에는 '잔류'와 '강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11일에는 FA컵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 2차전 경기가 펼쳐진다.

지난 5일 K리그1 최종전이 열렸다. 이날 전북은 제주유나이티드를 2-0으로 꺾고, 리그 5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K리그 최다 우승 기록도 9회로 경신했다.

최종전에서 2-0 승리를 거두고도 뒤집기쇼를 펼치지 못한 울산현대는 최다 준우승 기록을

'10'으로 늘렸다.

우승 경쟁이 끝나자마자 7일 '최고의 선수' 자리를 놓고 선수들의 경쟁이 전개된다. 대상에 오를 주인공은 이미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1월 29일 K리그1 개인상 후보선정위원회를 열어 올 시즌 K리그1의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선수상(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부문의 4배수 후보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 후보들을 대상으로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가 진행됐다.

MVP 트로피를 놓고 세진야(대구), 이동준(울산), 주민규(제주), 홍정호(전북)가 경쟁한다. 영플레이어상은 임원상(광주), 고영준(포항), 설영우(울산), 정상빈(수원)의 대결로 압축됐다.

그리고 김도균(수원FC), 김상식(전북), 이병근(대구), 홍명보(울산) 감독은 K리그 최우수 감독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골키퍼 1명, 수비수 4명, 미드필더 4명,

공격수 2명 등 올 시즌을 대표하는 '베스트 일레븐'이 7일 공개된다.

8일에는 K리그1 강원FC와 K리그2 대전하나시타즌이 운명의 승부에 나선다.

K리그1의 강원은 11위로 정규리그를 통과하면서 다이렉트 강등은 피했다. 하지만 대전의 도전을 물리쳐야 내년 시즌에도 1부 무대에서 뛸 수 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강플레이오프 티켓을 거머쥔 대전은 2015시즌 이후 7시즌 만에 1부 복귀를 노리는 만큼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차전은 대전 안방에서 열리며, 2차전은 강원 홈경기로 진행된다.

전남드래곤즈의 FA컵 우승 도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남은 11월 24일 열린 대구FC와의 2021 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에서 0-1 패배를 기록했다. 안방에서 패배를 기록한 만큼 적지에서 승리를 노려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전남은 새로 가세한 '에비역' 정재희를 더해 K리그2 팀 사상 첫 FA컵 제패라는 목표를 위해 11일 후련의 승부를 다짐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투수 이준영

“내년에는 초반부터 속도 내야죠”

“부상 안 당하게 준비 잘해

좋은 모습 꾸준히 유지”

KIA 타이거즈의 이준영(사진)이 '꾸준한 2022' 시즌을 위해 달린다.

지난 11월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 이준영은 투수주 'MVP'였다. 이준영은 오버페이스를 걱정할 정도로 부지런히 뛰고 또 뛰었다.

이준영의 질주에는 이유가 있었다. 좋았던 가을 기억을 붙잡지 이어가고 싶은 게 그 이유였다.

이준영은 지난 가을 철벽 불펜진의 한 축이었다. 올 시즌에도 사실상 유일한 좌완 불펜으로 활약하면서 초반 부진을 딛고 뜨거운 가을을 보냈다. 9월 이후 23경기에서 22.1이닝을 소화하면서 2.82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1패 5홀드를 기록했다.

2020시즌에도 좋은 흐름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던 만큼 초반 부진이 고민이자 속제다. 올 시즌에는 왼쪽 햄스트링 부상까지 찾아오면서 힘겨운 봄날을 보냈다.

이준영은 “올 시즌 많이 아쉬웠다. 초반에 너무 안 좋았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초반에는 안 좋고 후반에는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었다. 초반부터 집중해서 잘 해야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초반 부진 속 우타자 승부도 많았고, ‘깜짝 선발’로도 나섰다. 아쉬운 장면도 많지만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됐다.

이준영은 “초반에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다 보니 우타자 승부도 많이 나왔다. 통으로도 나갔고 원포인트도 나갔다.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니 똑같은 마음으로 올라갔다”면서도 “좌타자 피안타율을 낮추고 싶다. 좌타자를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타자 피안타율이 낮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10월 21일 한화전에서 경기 시작 10분을 앞두고 ‘선발’ 통보를 받았다. 이날 선발이었던 이의리가 불펜 피칭 도중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면서 같은 좌완인 이준영이 대체 선발로 긴급 투입됐다.

이준영은 “내가 못 던졌다. 첫 타자, 두 타자 잡고 힘도 떨어지고 제구도 안 되고 너무 내가 한심했다. ‘선발’ 통보를 받았다. 이날 선발이었던 이의리가 불펜 피칭 도중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면서 같은 좌완인 이준영이 대체 선발로 긴급 투입됐다.”

이준영은 “초반에 변화구가 좋지 않았고, 제구도 안 됐다. 제구가 되니까 자신감이 불고 승부하

기 편했다. 결국 멘탈인 것 같다. 초반 한 두 경기에서 맞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다. 몸도 좋지 않은데 결과까지 나빴다”며 “옆에서 (홍)상삼이 형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도움이 많이 됐다. 2군에서 서재용 코치님과도 이야기 많이 하면서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돌아봤다.

슬라이더도 반전의 무기가 됐다.

그는 “슬라이더를 강하게 던졌다. 직구를 보여 주는 식으로 깊숙하게 던지고 슬라이더를 강하게 던졌다. 그러면서 강약 조절을 하니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시즌, 내년에는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싶은 게 이준영의 바람이다.

이준영은 “제일 아쉬운 게 부상이다. 부상 신경 쓰다보니 멘탈도 흔들렸다. 몸 잘 만들고 부상 안 당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다”며 “(한)승택과 필라테스 하고 있다. 유연성도 중요하고, 코어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보고 있다. 또 (김)호령이가 웨이트를 열심히 하니 함께 힘도 키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군대 가기 전에는 막내였는데 군대 다녀오니 팀 투수 서열 2-3번째가 됐다. 할 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부담이 됐다. 잘해야 한다. 잘해야 살아남는 것이다”라며 “맛글 보면 ‘휴가 시간이 운동 안 하나’, ‘후반에는 탄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그런 소리 안 듣게 초반부터 잘하겠

다. 좋은 모습 꾸준히 유지해서 후반까지 잘 마무리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 편했다. 결국 멘탈인 것 같다. 초반 한 두 경기에서 맞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다. 몸도 좋지 않은데 결과까지 나빴다”며 “옆에서 (홍)상삼이 형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도움이 많이 됐다. 2군에서 서재용 코치님과도 이야기 많이 하면서 도움이 많이 받았다”고 돌아봤다.

슬라이더도 반전의 무기가 됐다.

그는 “슬라이더를 강하게 던졌다. 직구를 보여 주는 식으로 깊숙하게 던지고 슬라이더를 강하게 던졌다. 그러면서 강약 조절을 하니 많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시즌, 내년에는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싶은 게 이준영의 바람이다.

이준영은 “제일 아쉬운 게 부상이다. 부상 신경 쓰다보니 멘탈도 흔들렸다. 몸 잘 만들고 부상 안 당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다”며 “(한)승택과 필라테스 하고 있다. 유연성도 중요하고, 코어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보고 있다. 또 (김)호령이가 웨이트를 열심히 하니 함께 힘도 키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군대 가기 전에는 막내였는데 군대 다녀오니 팀 투수 서열 2-3번째가 됐다. 할 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뭔가 부담이 됐다. 잘해야 한다. 잘해야 살아남는 것이다”라며 “맛글 보면 ‘휴가 시간이 운동 안 하나’, ‘후반에는 탄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 그런 소리 안 듣게 초반부터 잘하겠

다. 좋은 모습 꾸준히 유지해서 후반까지 잘 마무리하는 걸 가장 큰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빨간 셔츠·검은 바지...우즈가 돌아왔다



타이거 우즈가 붉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6일 바하마 올버니 골프클럽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웨이 스윙 동영상에 이어 페어웨이우드, 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모습을 차례로 선보인 타이거 우즈(미국)가 이번에는 ‘트레이드 마크’인 붉은색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연습장에 나타났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6일(한국시간) 바하마 올버니 골프클럽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했다.

붉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는 우즈가 대회 최종 일이면 늘 입는 단골 패션이다.

최종 라운드가 일요일에 열리기에 우즈의 붉은 셔츠는 ‘선데이 레드’(Sunday Red)라는 고유 명사 대접을 받는다.

이곳에서 열리는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주최자 자격으로 올버니 골프클럽에 머무는 우즈는 대회 기간 내내 연습장에서 샷을 가다듬었다.

대회 이를 전인 화요일에 처음 연습장에 등장한 우즈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사흘 연속 연습장에서 클럽을 휘둘렀다.

특히 일요일인 이날은 마치 최종 라운드 경기를 치르는 듯한 북장음도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우즈는 시상식에도 붉은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은 채 참석해 우승자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과 사전을 찍었다.

지난 2월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우즈는 그동안 힘겨운 재활 끝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최근에는 연일 샷 연습 모습을 선보여 필드 복귀가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는 우즈가 오는 19일과 20일 이를 동안 열리는 가족 골프 대회 PNC 챔피언십에 우즈가 아들 찰리와 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